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2. 한문불교용어의 기원

중국고전 용어차용

범본불전 번역 해석

우리는 해탈 · 청정 · 공양 · 지혜 · 감로 · 중생이라는 불교 용어를 친숙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인도와 서역에서 전해진 경전을 한역(漢譯)하면서 채택한 중국 고전 용어다. 즉 이 용어들은 불교가 중국 고전에서 빌려쓰기 시작해 대중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불교의 중국 전래는 서기 67년경. 당시 중국인들은 이미 높은 문화와 학술체계를 갖추고 그들의 고유한 사유방법을 확립하고 있었다. 인도 불교가 전래되자 중국인들은 고유의 문자와 사상으로 '불교'라는 이국의 종교와 철학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는 인류의 문화 교류사에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장대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1~4세기 중국인들의 불교이해는 중국 고전의 현의(玄義)와 용어를 차용한 격의적(格義的)인 경전 번역과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국에 전해진 범본 불전을 중국 고유의 고전과 철학에 의해서 이해하고 번역하는 방법을 격의불교(格義佛敎)라고 한다. 이 격의(格義 · Matching Concepts)라는 개념은 혜교의 <고승전> 축법아(竺法雅)조에 실린 "경전의 중요개념을 외서에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을 격의라고 한다(以經事數擬配外書 爲生解之例 謂之格義)"는 구절에서도 잘 정의되고 있다.

<노자>, <장자>와 같은 중국 고전에서 범본 경전의 원어에 합당한 용어를 채택하여 번역하는 격의불교는 이질적인 인도불교가 중국의 문화와 철학의 두꺼운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특히 252년 강승개(康僧鎧) 삼장이 역출했다고 전해지는 <무량수경>의 여러 용어들은 중국 고유의 문헌에서 차용된 실례를 보여준다.

해탈(解脫)은 <사기>에, 공덕(功德)은 <예기>에, 광명(光明)은 <순자>에, 중생(衆生)은 <예기>의 "중생은 반드시 죽나니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衆生必死 死必歸土)"는 구절에, 공양(供養)은 <한비자>에, 지혜(智慧)는 <노자>에, 보시(布施)는 <한비자>에, 청정(淸淨)은 <회남자(淮南子)>에, 안락(安樂)은 <맹자>에, 감로(甘露)는 <노자>에, 재계(齋戒)는 <맹자>에 그 전거를 두고 있다. 또한 축법호(竺法護) 삼장이 역출한 <미륵하생경>에서는 "미륵이 출현하실 때 염부의 땅에 있는 모든 촌락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로서 기후는 화적(和適)하고 사시(四時)의 절기는 고르며 인심(人心)은 평균하여 모두 같은 뜻으로 융화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고 용어뿐만 아니라 미륵 정토의 표현까지도 도가가 설하는 지극한 덕의 세계로 기술되고 있다. 이 인용에서 보이는 "촌락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라는 구절은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이상을 표현한 노자제 80장 독립(獨立)의 "나라들이 서로 마주 보이며 개와 닭 울음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백성은 늙어서 죽도록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隣國相望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不相往來)"의 한 구절이며, "기후가 화적하고 사시의 절기는 고르며"라는 구절은 장자의 한 구절이며, "인심은 평균하며 모두 같은 뜻으로 융화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는 구절은 도가가 표현하는 지극한 덕의 세계이다.

경전용어의 도가적 번역은 초기의 한역 불전에 나타난 불타(佛陀)의 역어에서도 나타난다. 한역 <아함경>에서는 붓다를 진인(眞人)으로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자>에서는 무수히 읽혀지는 도가적 인간상, 즉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를 성취한 진인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한문 불교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중국에 전래된 범본 불전의 한역은 중국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적 영향을 배경으로 행해졌으며 원전의 교의나 기술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독자적 해석과 사고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독자성은 때때로 오해와 왜곡을 동반한다. 따라서 토착 중국불교와 인도불교의 동일성과 차이점, 또는 독자성을 이해하려면 범본 불전의 한역과정과 방법, 중국 고전과 철학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역 불전과 현존 범본 불전의 대응관계를 상세히 공부한다면 원전의 번역과정에서 취해진 역어 선택의 사상적 의도를 보다 잘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경학회 회주

불보살 찬탄하는 환희의 노래

참 불 자 의 길 — 불교음악

범패 · 찬불가 뿐 아니라 예불 · 기도도 운율 있어

불자라면 사찰의 법회나 행사에서 한두 번쯤 접해봤을 불교음악. 불교음악은 어떤 것이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또 한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불교음악은 불교와 관계있는 모든 음악을 총칭한다. 범패와 찬불가는 물론 스님들이 예불이나 기도 때 하는 염불도 상당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다.

불교음악은 불교가 전래된 지역에 따라 그 상황에 알맞은 음악으로 변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로부터 발생한 불교음악이 전래된 국가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불교음악을 창출해 낸 점은 좋은 예이다. 우리의 불교음악은 중국을 거쳐 유입된 인도음악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중국의 불교음악이 바로 들어 온 것이다. 이는 진감 국사가 당나라로부터 범패를 전수 받아 신라에 유포시켰다는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용된 불교음악은 새로운 불교음악으로 탄생됐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불교음악의 대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범패와 토착음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염불과 화청, 신라시대의 향가와 조선시대에 씌어진 '사리영응기'에 전하는 세종대왕의 불가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현대는 1920년대 창작찬불가가 불교음악을 주도하고 있다. 찬불가는 구비전승으로 전래된 불교음악과는 달리 서양음악기법에 의해 작곡한 곡들이다. '찬불가(讚佛歌)'라는 용어는 불보살을 찬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가요풍인 불교가요, 가곡풍인 불교가곡, 동요풍의 불교동요 그리고 법회 의식용 찬불가 등이 포함된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찬불가의 역사는 부처님 재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설법이 끝날 때마다 환희에 찬 대중들이 부처님께 흠모와 존경심 그리고 찬탄을 담은 노래를 부른 것이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찬불가란 용어가 찬송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해다. <남해기귀내법전>에 보면 '찬불'과 함께 '찬송'이란 용어가 실려 있어 반대로 불교음악용어를 타종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찬불가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예는 1925년 권상로가 출판한 <부모은중경> 악보집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첫 번째 곡명이 '찬불가'이다. 이는 불교음악계에 큰 변화를 주었다. 찬불가가 불리게 되면서부터 스님들이 주관해오던 불교의식에 대중들이 동참하는 의식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마음선원이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마련한 심장병 어린이돕기 한마음 합창제 '님의 소식' 모습.

그리고 찬불가는 사찰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행하는 제반 불교행사에서도 폭넓게 불리면서 포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1927년부터 시작한 현대 찬불가 운동은 불교의 대중화와 의식의 현대화를 위해 펼쳐졌는데 용성스님 이외에도 퇴경 · 대은 스님 등이 주도했고, 1950년대에는 청소년 포교에 원력을 세운 운문 스님에 의해 주도된다. 이렇게 탄생한 곡들이 오늘날 현대 창작 찬불가의 시초가 되었다.

70년대부터 작곡가들에 의해 찬불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80년대부터 찬불가 포교의 중요성을 깨달은 각 사찰들이 앞 다투어 합창단을 만들고, 찬불가 제작과 보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활성화 됐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교성곡과 오페레타 등 새로운 불교음악의 장르를 개척해 가며 불교음악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김주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㊴

이보문(李寶文)에 대한 답서

어둡고 우둔함이 곧 밝고 총명함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어둡고 우둔함을 능히 알 수 있는 그것은 결코 어둡고 우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어느 곳에서 초월하고 깨달을 것을 찾겠습니까? 지식인이 이 도를 배우려면 도리어 어둡고 우둔함에 의지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어둡고 우둔함에 집착하여 스스로 나에게 돌아올 몫은 없다고 여긴다면 어둡고 우둔함이라는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대개 평소에 지견(知見)이 많으면 깨달음을 찾는 마음이 앞에서 가로막기 때문에 자기의 올바른 지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도 역시 밖에서 온 것은 아니며, 또한 별다른 일도 아닙니다. 다만 능히 어둡고 우둔한 것을 알 수 있는 주인공일 뿐입니다."

어두우니 밝으니 우둔하니 총명하니 하는 것은 이미 사념(思念)에서의 일이다.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알고 우둔함을 우둔함으로 아는 것은, 밝음을 밝음으로 알고 총명함을 총명함으로 아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어둡고 우둔하다는 생각도 하고 밝고 총명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은 어두움도 우둔함도 아니고 밝음도 총명함도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어둡고 우둔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미 어둡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은 그것이 드러나 있다. 그것이 어둡고 우둔함도 나타내고 밝고 총명함도 나타내니, 어둡고 우둔함을 떠나서 따로 밝고 총명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둡고 우둔함도 있고 또 밝고 총명함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둡고 우둔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밝고 총명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별심이니, 도에 들어가려면 이런 분별심을 극복해야 한다. 세속에서는 옳고 그름 · 좋고 나쁨 · 네 것 내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을 총명하다고 말하고, 지식인은 이러한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도에 들어가려면 이런 총명함에서 물러나야 하니, 분별심에서 하는 일은 전부 망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식인이 도를 배우려면 도리어 어둡고 우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 앞을 가로막으면 생각만을 보게 되고, 능히 생각할 줄 아는 스스로는 오히려 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생각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 생각이 스스로와 다른 별개의 무엇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앞을 가로막으면 생각만을 보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분별심이 앞을 가로막아서 늘 취하고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범부의 마음이다.

이것은 마치 눈이 바깥만을 바라볼 줄 알고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눈은 항상 바깥의 다른 대상들만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볼 수는 없지만, 지혜를 가지고 보면 도리어 바깥의 다른 대상들을 바라본다는 그 사실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어리석고 근기가 부족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실이 자신은 본래 어리석지도 않고 근기가 부족하지도 않고 중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눈이 자신을 자각(自覺)할 지혜가 없으면 다시 따로 자신을 찾아서 헤매어야 하듯이, 사람이 생각만을 따라다니고 생각하는 자신을 자각할 지혜가 없으면 생각한다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히 항상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로 자신의 존재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다.

눈은 바깥으로 보이는 차별되는 모양 속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결코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지혜로써 자신을 자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듯이 마음도 생각 속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 오직 생각 속에서 찾는 마음을 쉴 때에만 자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하는 것이 밝음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어두움이지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어두움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밝음이다. 그리고 마음을 알고 보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아무 차별이 없다. http://www.mindfree.net/